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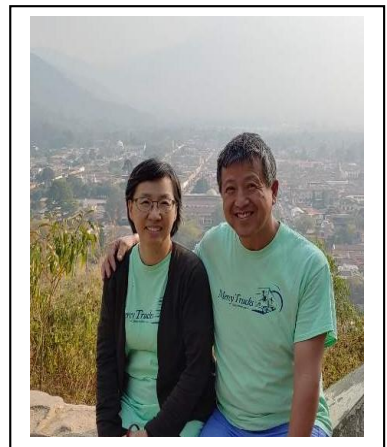
하나님의 사랑 과테말라에서 문안드립니다~

샬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온 세계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평안을 기원합니다.

지난 3 월 부터 모든 것이 정지된 이 곳 과테말라... 지속적으로 치솟는 확진자 수와 사망률, 그리고 열악한 의료시설과 의료진들의 사망 소식, 그리고 얼어붙은 경제난으로 인해 온 나라가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과테말라를 위해 아픈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주십시오.....

1. 저희 이동의료사역도 모든 일정이 취소된 채 멈추어 서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슬픈 일이지만, 그래도 지난 3 년 간의 초기 사역 기간을 돌아보며 감사와 회개,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 등이 다시 한번 재정비되는 귀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선교 초년병으로 그간 앞만 보고 달려가다 잠시 멈추어 서서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부족한 저희를 사랑하시어 이 곳으로 부르시고, 광야와 같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시며, 당신이 아끼시는 백성들을 깊이 사랑하고 섬기는 법을 가르치시고..... 그러면서도 언제나 공훈의 은혜를 베푸시어 늘 이끌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기도를 올려 드리고, 또한 이 모든 것을 위해 끊임없는 중보기도와 후원으로 협력하신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 보내는 선교사의 아름다운 향기 >를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2.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 이 곳 선교사들은 사역 영역에 상관없이 모두 < 긴급 구호 사역 >에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 식료품의 가격이 계속 치솟고, 소매점에서는 일반인이 양식을 구입할 수 있는 수량을 제한하기 때문에, 도매상들을 찾아 다니며 많은 수량의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 양식을 종류 별로 넣은 가방 보따리를 만들어 성경 말씀과 함께 가정을 방문하여 나누어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저희들의 정기 사역지 중 가장 가난한 곳을 선정해서 그 지역을

담당하는 저희 팀 현지인 사역자를 통해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가정들을 선별하여 번호표를 나누어 주게 한 후, 한 곳에 모여 '양식 보따리'를 직접 나누어 주었는데, 예상치 못한 인근 주민들이 많이 몰려와서 그저 민망한 마음으로 자리를 떠나 했습니다. 가격 폭등으로 인하여 기본 양식 한 보따리 당 무려 14 불 정도의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협력교회인 뉴저지 찬양교회의 긴급 구호자금으로 이 일이 가능하였는데, 앞으로 여러 후원처의 구제비가 연결되는 대로 '양식 나누어 주는 사역'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3. 지난 3년 간 저희 이동의료사역팀에 협력하여 저희와 함께 사역을 다닌 의료진 (내과/외과/가정의학과/소아과/치과/한방과/심리상담), 통역팀, 그리고 전도팀의 총 인원수는 50 여명으로 집계됩니다. 모두 현재 여러 모양으로 최전선에서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데, 그 중 한 명의 젊은 의사가 코로나에 걸렸다가 회복 중에 있습니다. 모두들 이동의료사역의 재개를 그리워하면서 저희들과 함께 했던 선교사역이 의사인 자신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기네



백성들에게 이방인이 베푸는 사역 속에서 함께 나누었던 사랑이 가슴 깊이 간직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 것처럼 사역을 함께 나가지도 못하고 만날 수도 없지만, 그 대신 매일 아침마다 그 날의 성경 말씀을 소셜 미디어로 그들에게 전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전도와 신앙의 연대를 목표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작은 사역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4. 기초 단계 사역을 마무리하며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다음 사역지를 아띠플란 호수지역으로 인도하심을 기도 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3년 간 수 차례 답사와 사역을 다니며 늘 비전의 그림만 그리고 있었는데, 바야흐로 그곳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아직 정확한 이동 시기도, 구체적인 계획도 알 지 못하지만, 여러 의료장비들과 의약품을 이동해야 하는 이 여정도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이끄시기를 소원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도 있으나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아름다운 일들을 고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호수 주위에 있는 12 지역 마야족 마을들을 대상으로 새롭게 시작될 이동의료사역을 위하여 많은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기도제목 >

1. 저희와 함께 이동의료사역을 하는 많은 현지의료진들이 최전선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부터 안전하도록 지켜주옵소서.
2.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의료시설은 이미 포화 상태이며 정부도 힘겨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활을 베푸셔서 속히 이 땅에서 코로나로 인한 백성들의 고통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3. 저희 이동의료사역이 속히 재개되어 어려운 백성들을 돕게 하옵소서.
4. 제 2 단계 사역시기를 맞이하며 저희 주거지와 사역지를 아미틀란 호수지역으로 이동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시작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5. 한국에 계신 양가 노모님들의 건강과 미국에 있는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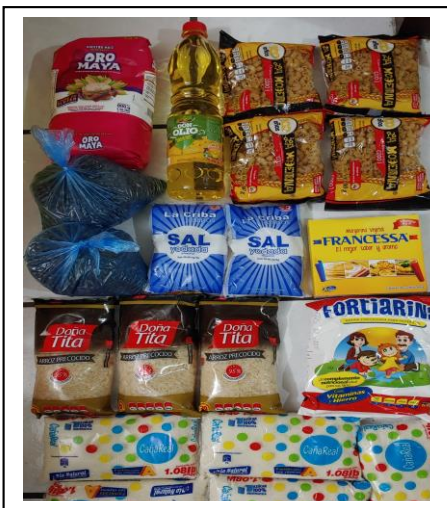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2020 년 8 월

고성봉/현옥 선교사 올림



살롬 장애인 선교회가 마스크를 기증함



양식 보따리 내용물